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2 pp. 592-601,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2.59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박서아[1], 신경숙[2*]
[1]경운대학교 간호학과, [2]대경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Nursing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Seoa Park[1], Kyoung-Sook Shin[2*]
[1]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Daekye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D광역시, G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test, ANOVA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점수가 4.39±0.39점 전공만족도는 4.23±0.58점 사회적 지지는 3.95±0.67점, 진로결정 수준은 2.08±0.63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은 대상자의 연령(F=5.23, p <.003), 성별 (t=4.24, p <.001), 졸업 후 희망근무지(F=8.64, p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443, p <.001), 전공만족도(r=.424, p <.001), 사회적 지지(r=.262, p <.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별(β=-.200, p<.002), 졸업 후 희망근무지(β=-.260, p<.001), 전공만족도(β=-.461, p<.001), 사회적 지지(β=.301, p<.003)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요인의 설명력은 29.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정도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in nursing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enrolling 208 nursing students in Daegu and Gumi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30 to July 30, 2022, and analyzed by applying t-test, ANOVA,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4.0. The mean scores obtained for nursing students were self-efficacy 4.39±0.39, satisfaction in major 4.23±0.58, social support 3.95±0.67,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2.08±0.63.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er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age (F=5.23, p <.003), gender (t=18.87, p<.001), and desired hospital (F=8.64, p <.001).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tained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and self-efficacy (r=.443, p <.001), satisfaction in major (r=.424, p <.001), and social support (r=.262, p <.001). Gender (β=-.200, p<.002), desired hospital (β=-.260, p<.001), satisfaction in major (β=-.461, p<.001), and social support (β=.301, p<.003) were determined to be the influential factors. Models that included the variables explained 29.9% of the variance for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e importance of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social support on the nursing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ailored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development of decision-making among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s, Career, Career Decision Level, Self 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Kyoung-Sook Shin(Daekyeung Univ.)
email: sook022@tk.ac.kr
Received December 6, 2022 Revised January 31, 2023
Accepted February 3, 2023 Published February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의 선택과 결정은 평생동안 지속되는 과제이며, 대학생 시기의 진로결정은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커다란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1,2]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미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 및 이에 따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3].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대한 확신을 경험할 수 있다. 임상실습경험은 진로결정 및 전공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임상 실습 전 진로지도는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하다[4]. 또한 간호대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정형화된 진로결정이 되어 자신의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탐색 및 자아정체성 확립이 부족한 실정이다[5,6]. 이는 취업 후 경험하게 되는 임상현장의 부적응과 전문직업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진다[7]. 더욱이 간호사로서 직종 선택은 보건직 공무원, 산업장 간호사 및 보건교사 등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하다[8]. 이에 간호대학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고 성공적인 취업 및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5]. 현재 간호대학에서 진로탐색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입학부터 졸업시까지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과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체계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9-11].

진로결정수준은 전공과 직업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하며[12,13], 그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하였다면 진로결정 상태,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나아 갈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켜 다양한 진로선택에 효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15,16], 전공만족도[13,17,18], 사회적 지지[19,20]가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과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로결정 및 진로적응에 주요한 결정인자이다[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문제에 보다 진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23], 이는 진로에 대한 자신의 주도성과 자신감 갖게 하므로 진로결정수준 및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13,17].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명확한 목표 및 방향을 갖게 하며[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공만족도란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써,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18].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과 취업 후에도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결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4,25]. 또한 간호학과 특성상 간호대학생은 전공교과목에 대한 이론과 실습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 지면서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이 높으며, 이는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 친구, 동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개인의 환경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26].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며[27],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28,29].

이상으로 살펴본 바, 간호대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간호사가 된다는 직업적 결정과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자신이 선택한 진로탐색과 고찰이 부족한 상태임을 고려해 볼때[5], 이는 취업 후 이직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의 진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선택에 있어서 진로결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여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18]. 따라서 임상실습 전 2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탐색 행동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나아가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구체적인 진로탐색활동의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D 광역시, G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3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할 경우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를 파악한 Choi와 Jung[20]의 선행연구에 근거로 하였다. G*power 3.1.9를 활용하여 회귀분석검정을 위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으며, 임의추정 예측변수 12개로 하여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184명으로 확인되었다. 학교별 고른 분포와 탈락률 25%를 고려하여 총 2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및 작성오류로 인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종 20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er[30]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Scale(CDS)를 Koh[31]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공 선택과 진로에 대한 확신, 교육과 진로 미결정의 전제조건으로 구성되며 18문항이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0이었고, Koh[31]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87이었다.

2.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32]가 개발하고 Lee와 Lee[3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개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5문항이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전혀 확신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신있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Lee[33]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2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총 문항의 Cronbach's alpha= .90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Ha[34]이 작성한 34개 문항 중 Lee[35]가 전공만족과 관련하여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의 4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하여 수정보완한 총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Ha[34]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92로 나타났으며, Lee[35]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전체 Chronbach's= .90이었다.

2.3.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ark[36]이 개발하고 Kim[37]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항목은 3개의 하위요인(부모, 교수, 친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부모의 지지를 제외한, 교수와 친구의 지지 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Park[36]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3, Kim[37]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총 문항의 Cronbach's alpha= .88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방법으로는 Scheffe´test를 이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다섯째,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G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승인번호 KW-2022-A-5)을 받고 연구윤리원칙을 준수하였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대상자들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지정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보관하게 되며 연구 종료 3년 후에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파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80(±2.87)세이며, 여학생이 79.8%(166명)으로 많았다. 간호학과에 지원동기는 '취업을 고려하였다'의 응답이 46.6%(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71.1%(180명)이 '매우 좋다'고 하였고 대인관계에서 61.3%(155명)가 '좋은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표현 정도는 '잘한다'가 45.2%(94명)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수업방법은 비대면 수업 47.1%(98명), 대면수업이 30.3%(63명)이었으며 선호하는 수업 매체는 '교재' 51.0%(106명), '휴대폰' 26.9%(56명), '태블릿' 22.1%(46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희망 근무지로는 대학병원이 39.9%(83명)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 22.1%(46명), 종합병원 1.4%(3명), 보건관리대행기관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t=-5.29, p<.001), 졸업 후 희망근무지(F=22.83, p<.001)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증 결과, 종합병원보다 대학병원, 보건관리대행기관 그 외 기타 근무지에서 진로결정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는 연령(F=3.10, p<.003), 성별(t=-5.25, p<.000), 의사표현정도(F=4.27, p<.006), 졸업 후 희망 근무지(F=9.04, p<.001)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의사표현정도는 매우 좋음이 보통과 좋지 않음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는 연령(F=3.71, p<.003), 성별(t=-3.72, p<.001), 졸업 후 희망 근무지(F=6.93, p<.001)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사회적 지지와 동일하게 연령(F=5.23, p<.003), 성별(t=4.24, p<.001), 희망 근무지(F=8.6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대학병원보다 보건소와 종합병원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함보다 보건소가 진로결정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Difference Career decision-making, Satisfaction in major, Social support,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Variables	Categories	n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level	
		M±SD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year)		20.80±2.87	4.39±.39	1.05(.379)	4.23±.58	3.10(.003)	3.95±.67	3.71(.001)	2.08±.63	5.23(.001)
Gender	Male	42(20.2)	4.12±.48	-5.29(.001)	3.83±.55	-5.25(.001	3.62±.63	-3.72(.001)	2.44±.63	4.24(.001)
	Female	166(79.8)	4.45±.33		4.33±.55	)	4.03±.66		1.99±.60	
Reasons for choosing department of nursing	Consider employment[a]	97(46.6)	4.40±.39	2.67(.048)	4.22±.58	0.85(.468)	3.96±.69	1.27(.283)	2.01±.60	0.79(.501)
	Solicitation from others[b]	37(17.8)	4.28±.45		4.21±.64		3.87±.65		2.09±.62	
	Consider aptitude[c]	56(26.9)	4.47±.32		4.31±.56		4.05±.67		2.15±.72	
	According to grades[d]	18(8.7)	4.25±.37		4.06±.55		3.72±.59		2.20±.56	
Satisfaction in school life	Very Satisfied[a]	180(71.1)	4.48±.25	1.61(.188)	4.46±.54	2.69(.047)	3.70±.67	1.24(.296)	1.85±.60	1.71(.166)
	Satisfied[b]	38(15.0)	4.42±.38		4.31±.59		3.98±.68		2.07±.65	
	Usually[c]	27(10.7)	4.33±.42		4.12±.57		3.91±.67		2.14±.62	
	Dissatisfied[d]	8(3.2)	4.52±.27		4.41±.52		4.17±.57		1.82±.65	
Human relationship	Very friendly	74(29.2)	4.36±.56	0.55(.647)	4.17±.68	0.15(.930)	3.94±.72	0.15(.928)	1.92±.59	1.87(.135)
	Friendly	155(61.3)	4.36±.37		4.25±.58		3.92±.68		2.02±.58	
	Usually	24(9.5)	4.43±.33		4.21±.55		3.99±.65		2.21±.71	
	Not friendly	0(0)	4.31±.66		4.30±.84		4.00±.71		2.07±.63	
Expression of opinion	Very good[a]	18(8.7)	4.48±.27	0.54(.650)	4.65±.47	4.27(.006)	4.13±.74	0.60(.615)	1.94±.71	1.38(.249)
	Good[b]	94(45.2)	4.38±.37		4.25±.58	a>c,d	3.96±.69		2.02±.59	
	Usually[c]	75(36.1)	4.39±.41		4.12±.56		3.93±.65		2.19±.67	
	Poor[d]	21(10.1)	4.32±.49		4.15±.64		3.85±.59		2.02±.57	
Favorite learning method	Online	98(47.1)	4.32±.42	2.96(.054)	4.16±.62	1.28(.280)	3.89±.68	0.97(.377)	2.09±.57	0.08(.921)
	Off line	63(30.3)	4.47±.33		4.31±.55		3.96±.69		2.09±.73	
	Hybrid	47(22.6)	4.40±.37		4.26±.53		4.06±.63		2.04±.63	
Favorite learning medium	Text book	106(51.0)	4.34±.04	1.52(.219)	4.18±.62	0.77(.464)	3.93±.68	0.63(.537)	2.06±.56	0.21(.810)
	Hand phone	56(26.9)	4.46±.34		4.30±.55		3.91±.68		2.12±.76	
	Tablet	46(22.1)	4.40±.38		4.25±.53		4.05±.63		2.05±.63	
Hoping hospital	University hospital[a]	83(39.9)	4.56±.23	22.83(.001)	4.49±.50	9.04(.001)	4.15±.70	6.93(.001)	2.03±.72	8.64(.001)
	General hospital[b]	3(1.4)	3.52±.06	a,d,e>b	3.61±.00		3.62±.00		2.61±.00	b,c>d
	Public health centerl[c]	46(22.1)	4.06±.49		3.98±.63		3.56±.50		2.47±.56	
	Occupational group health service[d]	2(1.0)	4.56±.00		4.44±.00		4.50±.00		1.33±.00	
	Not been decides[e]	74(35.6)	4.43±.29		4.12±.54		3.96±.64		1.88±.44	

3.2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수준의 정도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5점 만점에 4.39±0.39점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3±0.58점,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95±0.67점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수준은 4점 만점에 2.08±0.63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level (N=208)

Variables	M±SD	Min	Max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39±0.39	3.20	4.92
Satisfaction in major	4.23±0.58	3.00	5.00
Social support	3.95±0.67	2.75	5.00
Career decision level	2.08±0.63	1.33	4.00

3.3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및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r=.725, *p*<.001), 사회적 지지(r=.655, *p*=<.001)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r=.443, *p*<.001) 간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사회적 지

Table 3. Correlation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level (N=208)

Variabl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level
	r(*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1			
Satisfaction in major	.725(.001)	1		
Social support	655(.001)	.743(.001)	1	
Career decision level	443(.001)	.424(.001)	.262(.001)	1

지(r=.743, p<.001), 진로결정수준(r=.424, p<.001)간에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r=.262, p<.001)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Table 3).

3.4 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연령, 성별, 졸업 후 희망근무지 중 성별과 졸업 후 희망근무지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 분석결과 Durbin-watson는 2.053로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0.824, p<.001). 공차한계(tolerance) 범위는 .300~.925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VIF)는 1.28~3.33으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β=-.200, p<.002), 졸업 후 희망근무지(β=-.260, p<.001), 전공만족도(β=-.461, p<.001), 사회적 지지(β=.301, p<.003)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29.9%였다. 연령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level
(N=20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229	.576		7.348	<.001
Age	-.014	.015	-.064	-.963	.337
Gender*	-.317	.103	-.200	-3.065	.002
Hoping hospital*	-.345	.090	-.260	-3.832	.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19	.170	-.073	-.700	.485
Satisfaction in major	-.501	.115	-.461	-4.339	.001
Social support	.284	.095	.301	2.988	.003
Adj R^2=.299, F=10.824, p<.001					

*Dummy variable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80±2.87세, 남학생은 20.2%, 여학생이 79.8%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과 희망하는 근무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희망 근무지가 대학병원이 83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74명(35.6%), 보건소 46명(22.1%) 나타났다. Kim과 Kim[38]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이 입학시부터 임상간호사의 진로를 선택하나, 취업을 결정하는 시점에 취업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진로탐색준비 행동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39], 이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선택에 있어 희망하는 근무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로탐색 교육은 학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폭넓은 분야에 대한 취업기관, 진로에 대한 정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변수들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이 정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졸업 후 희망 근무지,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로 설명력은 29.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4.3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Jung 등[5]의 3.28점 보다 높았으며, Lee 등[40]의 2.90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는데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40]이 가장 낮았고, 1, 2, 3학년 대상의 Jung 등[4]이 다음으로 낮았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학년이 될수록 전공 교과를 학습하면서 겪는 어려움,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겪는 심리적 상태, 취업과정에서 겪는 부담감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저하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저학년부터 집중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4.23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Song and Shin[8]의 3.21점 보다 높았으며, Lee 등[40]의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3.8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Jung 등[4]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의 차이 보다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 사료된다.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등 감정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포함한 개념이다[34,35]. 본 연구에서는 2학년 간호대학생만을 포함하였으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 의사표현, 졸업 후 희망 근무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의사표현정도가 매우 좋을 경우가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긍정적인 성격 강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공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한 Mun and Hwang[4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신의 진로 및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학과적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3.95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Jung[20]의 3.69점,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Oh[42]의 연구에서 3.73점으로 나온 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Park[44]의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나, 교수의 지지가 친구의 지지보다 높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를 일부 지지한다. 입학시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된 대학생의 경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수의 사회적 지지는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44]. 간호대학생 또한 입학과 동시에 정형화된 진로결정이 되어 있으나 진로탐색과 고찰 부족, 전공에 대한 부적응은[5,24,25] 취업 후 경험하게 되는 임상현장의 부적응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진다[5,7].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대학생의 경우 보다 깊이 있는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효과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43]. 따라서 교수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개인별,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수자는 개인적 차원을 고려하고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학습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및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 2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및 진로결정수준을 파악한 후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진로를 보다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따른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년별에 따른 맞춤형, 단계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개의 대학에서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만으로 편의표집 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후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년별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C. K. Kim.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unseling.” Seoul, Dongmoonsa, 2001. p.23-28. 174-195.

[2] E. J. Porfeli, B. Lee, F. W. Vondracek, I.K. Weigol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Vol.34, No.5, pp.853-871, 2011.
DOI: http://dx.doi.org/10.1016/j.adolescence.2011.02.001

[3] M. Y. Jung, N. K. Cho, "A structural model of career satisfaction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10, pp.295-316, 2011.

[4]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27-36,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27

[5]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62-71,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1.062

[6] H. Cho, G.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20, No. 2, pp.163-173, 2006.

[7] Y. T. E. Teoh, L. H. Pua, M. F. Chan, "Lost in transition-a review of qualitative literature of newly qualified registered nurses' experiences in their transition to practice journey", *Nurse Education Today,* Vol.33, No.2, pp143-147, 2013.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2.08.016

[8] H. Y. Song, S. H. Shin,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9, pp.628-64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9.628

[9] S. J. Park,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on career development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259-267,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259

[10] K. N. Kwon, E. H. Choi,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24, No.1, pp19-28, 2010.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0.24.1.019

[11] K. S. Bang, J. K. Cho,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88-97, 200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88

[12] S. J. Kim, J. G. Kim, "An influence of the level of the course determination by major satisfaction of the department of security relation students". *Journal of Korean Sport Research,* Vol.18, No.5, pp.53-63 2007.

[13] S. O. Kim,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210-219,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210

[14] H. J. Hwang, J. Y. Paek, "Effects of self-ident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Secretarial Science,* Vol.24, No.1, pp.99-122, 2015.

[15] D. Y. Park,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decision making pattern in career and attitude in settling caree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19, No.4, pp.319-331, 2010.

[16] S. Y. Liaw, L. T. Wu, V. Lopez, Y. L. Chow, S. Lim, et al.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of an instrument to compare career choice influences and perceptions of nursing among healthcare students", *BMC Medical Education,* Vol.17, No.1, pp.1-11, 2017.
DOI: https://doi.org/10.1186/s12909-017-0910-7

[17] M. Komarraju, J. Swanson, D. Nadler, "Increased career self-efficacy predicts college students' motivation, and course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22, No.3, pp.420-432, 2014.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13498484

[18] I. O.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83-91,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83

[19] S. C. Whiston, B. K. Keller,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32, No.4, pp.493-568, 2004.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04265660

[20] H. J. Choi, K. I. Jung,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4, No.1, pp.61-72, 2018.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1.61

[21]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mpany, 1997.

[22] A. E. Abele, D. Spurk, "The longitudinal impact of self-efficacy and career goal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Journal Vocational Behavior*, vol.74, No.1, pp.53-62, 2009.
DOI: https://doi.org/10.1016/j.jvb.2008.10.005

[23] J. C. Lee, "Theoretical study and comparison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3, No.1, pp. 49-66, 2013.

[24] K. A. Ahmed, N. Sharif, N. Ahmad,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career choices: empirical evidence from business students", *Journal of Southeast Asian Research,* Vol.2017, No.2017, pp.1-15, 2017.
DOI: https://doi.org/10.5171/2017.718849

[25] S. H. Jang, "Analysis of career decision typ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6, No.3, pp.533-551, 2004.

[26] O. H. Lee,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1, pp.29~57, 2012.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The-Influence-of-Life-Stress%2C-Ego-Resilience-and-on-Lee/fa7583dfad93ca57d44914182e406e9ecbdd7b2e

[27] S. A. Bae, S. Y. Su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 pp.859-877, 2019.

[28] J. U. Kim, J. H.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3, No.9, pp.248-259,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9.248

[29]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2178-2186,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30] S. H. Osipow, C. G. Carney, J. Winer, B. Yanico, M. Koschier,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ed.). Columbus, OH: Marsthon Counsulting and Press, 1980, 2006.

[31] H. J. Koh,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Ph.D dissertation,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92.

[32]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No.1, pp.47-57, 1996.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103

[33] K. H. Lee, H. J.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12, No.1, pp.127-136, 2000.

[34] H. S. Ha, *A study on college students' department (undergraduate)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2000.

[35] D. J. Le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4.

[36] J. W. *Park,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5.

[37] M. S. Kim,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94.

[38] H. J. Kim, J. H. Kim, "Career cho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2, pp.127-136, 20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2.127

[39] M. S. Kim,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social responsibilit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7, No.4, pp.248-258, 2021.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21.27.4.248

[40] J. W. Lee, N. Y. Lee, Y. S. Eo,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311-320,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311

[41] M. Y. Mun, S. Y. Hwang, "Impact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8, pp.403-418, 2016.

[42] O. S. Oh,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5, pp.107-130,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05.24.5.107

[43] D.L. Blustein,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5, No.3, pp.260-274, 1997. DOI: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7.tb00470.x

[44] M.K. Park, Y.S. Kim, H.R. Lee, "A structural analysis of anticipated social supports, self-identity,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Woma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enter" *The Korea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Vol.27, pp.1-26, 2008.

박 서 아(Seoa Park) [정회원]

- 2022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2021년 2월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1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여성건강, 간호정보

신 경 숙(Kyoung-Sook Shin) [정회원]

- 2022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2022년 2월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2년 3월 ~ 현재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정신간호, 아동간호, 시뮬레이션